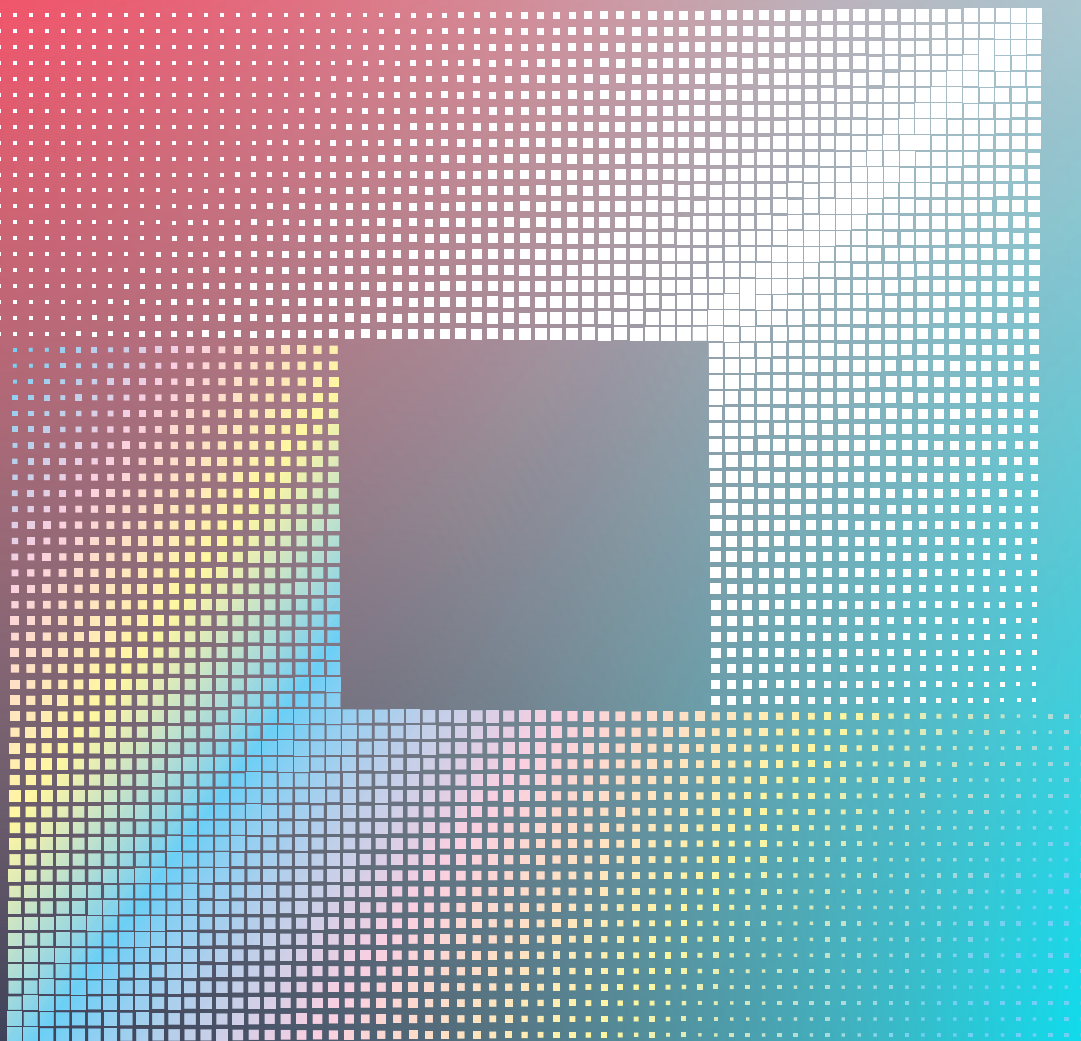


REFLECTIONS IN MOTION



HYUNDAI
MOTORSTUDIO
BUSAN

2021. 4. 8. - 6. 27.



REFLECTIONS IN MOTION

‘REFLECTION’이라는 단어는 이중적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디자이너가 첫 스케치부터 완제품까지의 디자인 과정에 자신의 과거와 현재 삶에서 형성된 관점을 반영하여 새로움을 창조하는 것을 내포합니다.

여기에는 자신을 둘러싼 사회, 기후, 자연, 정치, 경제 등이 반영되어 있기도 합니다. 반면 방문객들이 각각의 작품과 상호작용하는 즉각적인 움직임을 반영함으로써 현재의 현상을 비추는 예술적이고 시적인 디자인 경험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대자동차는 ‘REFLECTIONS IN MOTION’을 통해 방문객들이 ‘Reflection’의 의미에 대해 생각함과 동시에, 시간과 디자인의 상호 관계에 대해 고민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흥미를 불러일으킵니다. 예술적 감각, 즐거움 그리고 활기 가득한 전시 내내, 방문객들은 현대자동차의 인간 중심적 디자인 철학에 몰입되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We consider the term REFLECTION to have a dual meaning. On the one hand, there is the process of design creation, from the first sketch to the finished product. A designer must reflect on anthropology to create something new, and the relevance of his or her creation to society, climate, nature, politics, economy and much more. On the other hand, it is the artistic, poetic design experience that reflects the immediate movement of the visitors interacting with the touchpoints, representing reflections on the present.

With “REFLECTIONS IN MOTION,” Hyundai Motor enables visitors to explore the concept of reflection, stimulating them to discover and think about the mutual interrelation of time and design. Throughout the artistic, enjoyable and lively exhibition, visitors will be immersed in a narration of Hyundai Motor’s human-centered design philosophy - and will be set in motion!

PONY Heritage Series

1975년에 생산된 포니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시작을 예고했습니다.

“시간을 초월하는 가치 (Timeless value)”라는 컨셉은 첫 번째 포니에서부터 시작해 브랜드 역사를 통틀어 지속되며 차량 내외 디자인에 다양하게 적용되었습니다. Heritage Series - PONY의 실내 클러스터에는 유리의 고전적인 느낌과 장인 정신이 현대적인 LED와 결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75년 Pony 도어의 디자인 컨셉을 그대로 살려 고전적인 느낌을 유지하며 고급스러운 소재와 무드 조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또한 트렁크의 라스트마일용 1인승 모빌리티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에 대한 현대자동차의 인간 중심적 디자인을 보여줍니다.

전면부 헤드라이트는 1970년대와 80년대의 픽셀과 8비트 그래픽을 테마로 제작된 오마주입니다. "Pixel Roadtrip"은 이러한 디자인에서 영감을 받아, 평평한 바닥면에 흑백 픽셀 애니메이션의 단조로운 속도를 연출하면서, 이를 광원으로 활용하여 픽셀 변화의 여정을 표현합니다. 스케일 및 움직임과 같은 다양한 속성을 지닌 다채로운 픽셀 조합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패턴은 그 시대의 진정한 영웅인 Heritage Series - PONY의 그래픽 무대를 보여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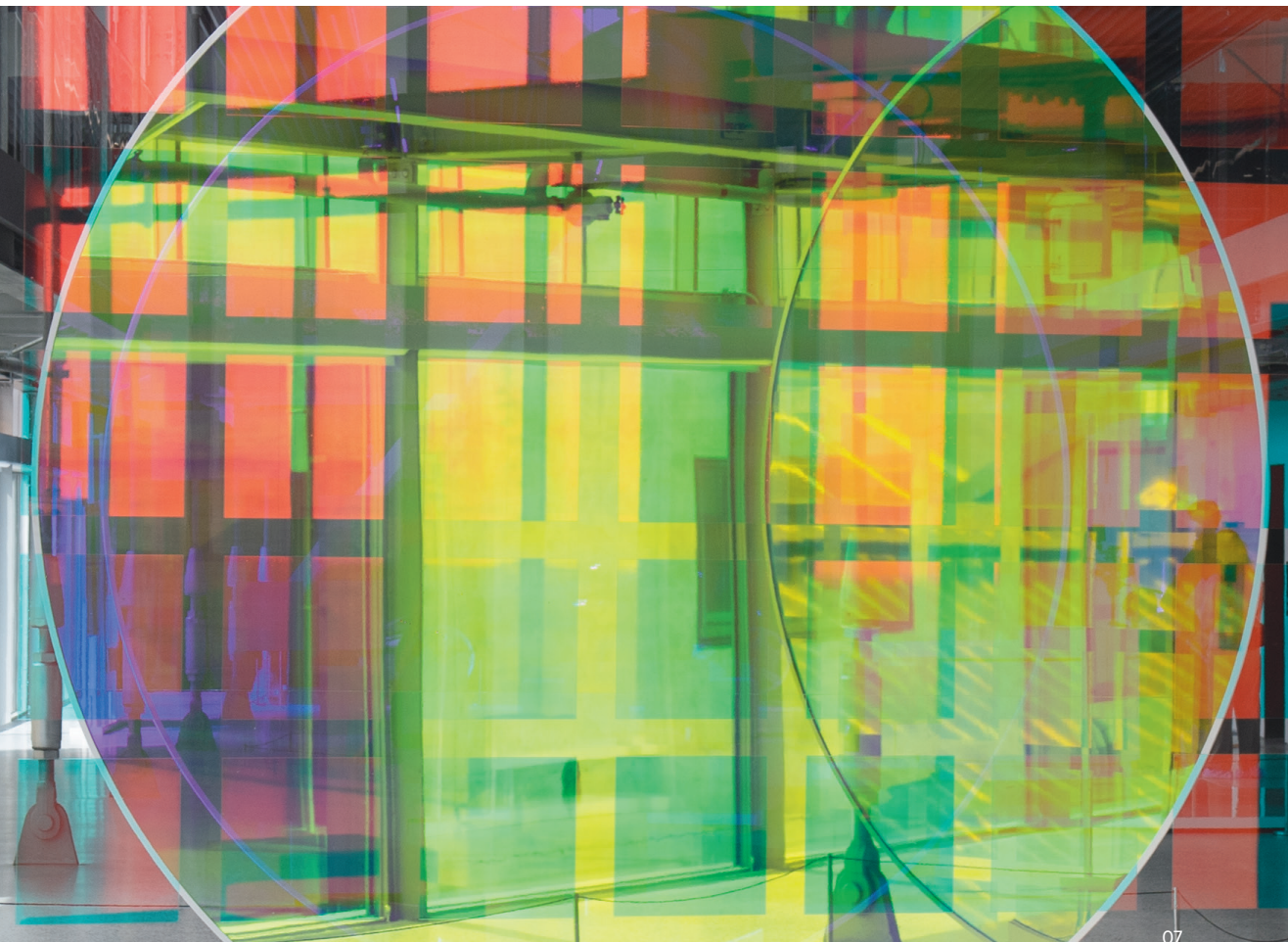
Manufactured in 1975, the Pony heralded the beginning of the Korean automotive industry. The concept of timeless value has always been at the core of both exterior and interior design throughout the brand history since the first Pony. The cluster of Heritage Series - PONY is a combination of the classic feel and craftsmanship of the glass elements and modernity of LEDs. The door design of the 1975 Pony is reinterpreted into a very modern design by using premium materials and mood lighting while keeping original's classic beauty. The Last Mile Mobility in the trunk represents Hyundai's quest for smart mobility solutions - human-centered design.

The front headlights are a homage to the pixel and the 8bit graphics of the 1970s and 80s. The "Pixel Roadtrip" is directly inspired by this design, concentrating and playing with the reduced momentum of the black-and-white pixel animation on its pure surface, and using it as a light source guiding us through that journey. Ever-changing patterns of colored pixel combinations with variable properties such as scale and movement create a graphical stage for the Heritage Series - PONY, a true hero of its era.

Color & Light

컬러 디자인은 감각을 통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이해하고 경험할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우리는 컬러와 빛, 그리고 공간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조화에 대한 각자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빛을 통해 우리 주변의 헤아릴 수 없는 다양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컬러와 형태는 차량과 브랜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자, 색조, 채도, 질감, 표면 및 효과의 복합적인 상호 작용입니다. 우리는 가까운 미래에 전 세계의 도로에서 어떤 컬러 디자인을 보게 될까요? 여기서 얼마나 많은 개성이 발현되고 개개인 간의 상호작용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컬러와 빛의 시각적 작용과 여러분의 움직임에 따라 반사되는 형상에 집중해 보세요. 당신의 존재가 햇살과 교감하여 끊임없이 변화하는 디자인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를 경험해보세요.

Color design has always been a powerful tool for making us understand the functions of the environment to experience them through our senses. Each of us has our own personal idea of the harmonization of color, light and their manifestation in space. Only through light can we experience the immeasurable variety of our surroundings. Color and form are the most important factors determining the first impression of a vehicle and the brand. It is a complex interplay of hue, saturation, texture, surface and effects. What colors will we see on the world's roads in the next few years? How much individuality and personal influence will be possible? Immerse yourself in a visual interplay of color and light and the reflection of your movement. Experience how your presence interacts with changing daylight to have an individual effect on a constantly changing desig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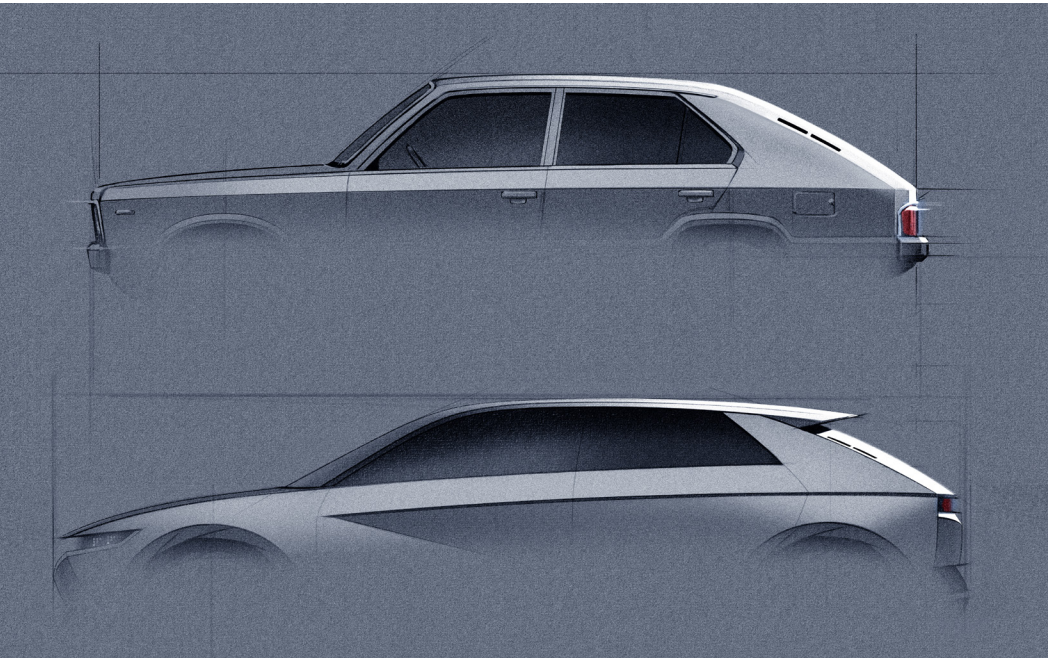
Material

현대자동차는 자동차의 미래를 운전자와 탑승자에 맞춰 개별적으로 설계되고 디자인된 생활 공간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속 가능한 소재의 활용과 조합이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개인의 취향, 선호, 욕구가 새로운 모빌리티 개념에 적용되면, 모든 감각에 맞춘 색다른 경험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우리 자신의 아이디어와 취향이 반영된 업무 공간과 개인 생활 공간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이제 자동차 내부를 맞춤 설계하여 우리만의 "완벽한 공간"으로 재탄생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새로운 디자인의 무한한 구성을 만들어 내는 예술적 만화경을 통해, 부드럽게 변화하는 다양한 소재와 움직임의 흐름을 경험해 보세요.

Hyundai Motor sees the future of automobiles as an extension of our living space that can be individually designed for the driver and passengers. The use and combination of sustainably produced materials will play a decisive role in creating that space. When personal preferences, tastes and desires find their way into new mobility concepts, it will generate a novel experience for all the senses. We already furnish our work environment and our private living spaces to reflect our own ideas and tastes. Now, we can also custom design the interiors of our cars, transforming them into our very own "perfect space" and improving our quality of life. Witness a constant flow of gentle movement and materials in the artistic kaleidoscope to form an almost infinite interplay of new design compositions.



45



45는 현대자동차의 현재를 보여주며, 과거와 미래를 조화롭게 반영하여 EV 디자인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있습니다. 2019 프랑크푸르트 모터쇼(IAA)에서 처음 공개된 45는 지난 45년 간의 현대자동차 디자인 유산에 대한 존경을 담았으며 그 디자인 유산은 70년대의 포니 쿠페 컨셉카를 오마주한 디자인을 통해 미래의 EV 플랫폼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첫 번째 전용 전기차로 출시되는 아이오닉 5는 미래 EV 모빌리티 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주도적으로 열어갑니다. 외부 디자인은 포니 디자인 유산에 대한 존경을 표현하는 반면, 내부 인테리어는 미래지향적인 느낌을 줍니다.

45의 내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집 거실처럼 넓고 편안하며 아날로그와 디지털 시대의 정신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는 라이프스타일에 따라 자유롭게 재구성되는 전동화 기반의 개인 맞춤형 디자인 경험인 "Style Set Free"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The 45 represents our present, harmoniously blending past and future and ushering in a new era of EV design. Unveiled for the first time at the 2019 Frankfurt Motor Show (IAA), the 45 pays respect to Hyundai's design with 45 years of history. The design heritage transformed into the future on a new EV platform, paying homage to the Pony Coupe from the 1970s.

As Hyundai's first dedicated EV production car, it is now coming to market under the name IONIQ 5. It is the forerunner of a new era of EV mobility that Hyundai will lead in the future. While the body design of 45 pays homage to the Pony, the interior provides an exciting futuristic look. The cabin of the 45 interior looks like a home you would like to live in. It defines analogue combined with digital - the spirit of the digital age. Design and function follow the "Style Set Free" principle defined by Hyundai Design to emphasize the need in the near future to personalize vehicle environments and on-board systems.

시간을 초월하는 아름다움과
가장 순수한 형태의 EV 컨셉카

A timeless beauty and
the purest form of the automobile

Prophecy

프로페시의 디자인 컨셉은 '인간과 자동차 사이의 감성적 연결이 부여되는 긍정적이고 낙관적인 미래'입니다. 미학과 기능성의 완벽한 조화를 구현하고 현대자동차의 최신 디자인 철학인 'Sensuous Sportiness(감성적인 스포티함)'를 바탕으로 미래 전기차의 디자인 방향성을 제시하는 컨셉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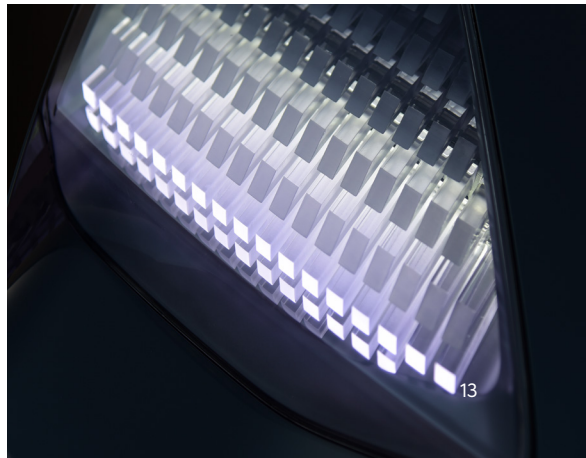
공력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간결하고 매끈한 유선형 차체와 실루엣을 적용하였으며, 볼륨감 있는 펜더는 마치 해변가의 검은 조약돌과 같은 느낌입니다. 실내에서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스티어링 휠을 대체하는 2개의 조이스틱입니다. 센터 콘솔과 도어 트림에 적용된 좌, 우로 기울일 수 있는 2개의 조이스틱은 운전자가 가장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며 새롭고 직관적인 운전의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전조등과 후미등, 그리고 스포일러는 픽셀로 통합된 전체적인 형태를 형성하고 새로운 차원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나타냅니다. 바디 일체형 3D 픽셀 라이팅은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라인업에서 시그니처 디자인 요소로 지속될 것입니다. 프로페시의 디자인은 지속 가능한 기술을 추구하는 현대자동차의 철학을 반영하여 재활용 가능한 친환경 소재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REFLECTIONS IN MOTION
Prophecy

The design concept of the Prophecy is "Optimistic Futurism." It embodies the perfect harmony of aesthetics and professionalism and expresses Hyundai Motors latest design philosophy, "Sensuous Sportiness."

The simple and sleek streamlined body is inspired by black pebbles on the beach, while the voluminous fenders and sleek silhouette are shaped to enhance aerodynamic performance. Instead of a steering wheel, joysticks provide a completely new yet reassuringly familiar and intuitive driving experience. Pixels integrated into the headlights, taillights and spoiler come together to form a holistic form and present a new level of expressive freedom. The pixelated lamp design will continue as a signature Hyundai design element. The Prophecy design is based on recyclable, eco-friendly material, a reflection of Hyundai Motors philosophy of pursuing sustainable technology.



Media Strings [2021]

목진요

Jin-Yo Mok

미디어 아티스트 목진요 작가의 Media Strings는 현의 진동과 울림을 기계장치와 빛으로 재현합니다. 작은 LED가 달린 와이어들은 알고리즘에 의해 움직이며 마치 빛이 현을 타고 흐르며 소리를 내는 듯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가동 속도에 따라 달라지는 순수한 기계음과 현악4중주 음악이 조화를 이루며 새로운 공간적 경험을 만들어냅니다. 이렇게 창조된 무대는 현대자동차의 디자인 철학인 'Sensuous Sportiness (감성적인 스포티함)'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Media Strings is a kinetic media art installation that reinterprets the vibration and echo of strings with machinery and light. Each string of small LEDs is played by an algorithm, as if the lights are flowing through the strings and producing sound. It is a new spatial experience by harmonizing pure mechanical sounds with string quartet music which varies in accordance with the speed of the strings. The artwork also expresses Hyundai Motor's design philosophy "Sensuous Sportiness."

미디어 작품 운영 시간

11:00~19:00 매시 정각 및 30분 시작

마지막 공연 18:30

Media Art Operation Time

11:00~19:00 Every hour and on the half hour

Last viewing 18:30

만드는 게 무엇이든 간명하게 이해되는 작품이기를 바란다.
나는 최대한 쉽게 그린 그림을, 거의 불가능해 보이는 설계를 통해 실현한다.

이런 특성은 본디 예술이니 기술이니 이름 붙여 구분하지 않는다.

I keep repeating a routinary procedure where I first quickly make simple drawings, and realize them through the complex engineering that seems almost impossible.

In this procedure, my art and my technology start talking and interacting with each other, and I enjoy them playing.

목진요는 홍익대학교와 동 대학원, NYU(ITP)를 졸업하였다. ARS ELECTRONICA, 휘트니미술관, The Creators Project, 뉴욕 첼시 미술관, 대만 현대미술관, 모스크바 현대미술관, 국립현대미술관 등 다수 국내외 전시에 참여하였으며, 기업이나 공공기관과의 협업을 통하여 주목할 만한 미디어아트 작품을 다수 제작했습니다. 또한 20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창조원의 예술감독, 2018 평창동계올림픽의 영상감독으로 재직하며 국가형 메가 이벤트를 감독했습니다. 현재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 디지털 아트 전공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Jinyo Mok graduated from Hongik University (BFA and MFA), and NYU (ITP). He participated in numerous domestic and international exhibitions, including Ars Electronica, Whitney Museum, The Creators Project, New York Chelsea Art Museum, Taiwan Museum of Contemporary Art, Moscow Museum of Contemporary Art, and National Museum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t Seoul. He also served as art director of Asia Culture Center (ACC) Creation and video art director of the 2018 Pyeongchang Winter Olympics opening/closing ceremony, overseeing the national mega event. He is currently a professor of digital art at the Mirae Campus of Yonsei University.

Hyundai Motorstudio

Shop – REFLECTIONS IN MOTION

REFLECTIONS IN MOTION
Shop

<REFLECTIONS IN MOTION> 전시에서 받은 영감을 그대로 간직할 수 있는 연장선, 전시장의 시작점에 위치한 SHOP의 전시MD존은 이번 전시의 또 다른 묘미입니다. 감각적인 디자인으로 전시의 아이덴티티를 담은 이번 전시의 굿즈는 단순한 기념품을 넘어 전시를 입체적으로 기억할 수 있게 돕습니다. 8가지 아이템들은 현대 모터스튜디오라는 공간의 경험과 전시의 영감을 디자인 언어로 확장시킨 전시의 또 하나의 요소입니다. 일상에서 <REFLECTIONS IN MOTION>을 경험하세요.

The Exhibition MD Zone in the SHOP is an extension of the inspirations present in <REFLECTIONS IN MOTION> and an alternative charm of the exhibition. Designed with sophistication and the identity of the exhibition in mind, the merchandise of this exhibition is not just souvenir. They help you remember the exhibition three-dimensionally. These eight items are another key element of the exhibition that amplify the spatial experience of Hyundai Motorstudio and inspirations of the exhibition into concrete design language. Experience <REFLECTIONS IN MOTION> in your daily life.



- 전시MD 상품은 전시 종료시까지 구매가 가능합니다.
- Exhibition MD products are available for purchase until the end of the exhibition.



DESIGN VALUE BEYOND TIME

전동화 시대를 선동하는 TIMELESS DESIGN

Timeless design that leads the electrification era

현대자동차의 미래 디자인은 지속가능성의 구현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저마다 다른 개성을 가진 미래 전기차의 공통점은 'Parametric Pixel'에 녹아 있으며 어디서나 전기차만의 정체성을 더욱 강화시켜줍니다. 시대를 초월하고 영속적인 디자인은 사람을 위한 지속가능성, 진보를 향한 시작입니다.

The ultimate goal of Hyundai's design is to make a better future by realizing sustainability. The 'Parametric Pixel' penetrates all of our electric vehicles with its uniqueness, strengthening the identity of the EVs. A timeless design is where sustainability and progress for humanity start.

TIMELESS DESIGN

HERITAGE
유산

SUSTAINABILITY
지속가능성

PURITY
순수

PAST

HERITAGE SERIES
PONY

PRESENT

45

FUTURE

Prophecy

PIXEL로 보는 TIMELESS 스토리

A timeless story through pixel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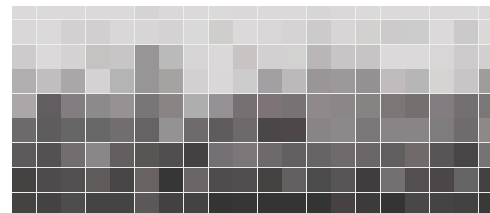
HERITAGE SERIES - PONY



1974년 토리노 모터쇼에서 첫 공개한 이탈리아 디자이너 조르제토 주지아로(Giorgetto Giugiaro)가 디자인한 포니 쿠페 컨셉카는 대한민국 자동차 디자인 첫걸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Heritage Series - PONY는 그 시절의 이미지를 전기차 외형에 최대한 보존하였고 동시에 내부에는 미래 인간 중심적 디자인을 접목하여 헤리티지와 상징적 의미를 재해석했습니다.

The 1974 Pony Coupe concept car, designed by Giorgetto Giugiaro, represents the first step of automobile design in Korea. Heritage Series - PONY reinterprets the spirit of the concept by protecting the original image in the EV exterior and applying human-centered future design to the interior space.

PAST - 2D PIXE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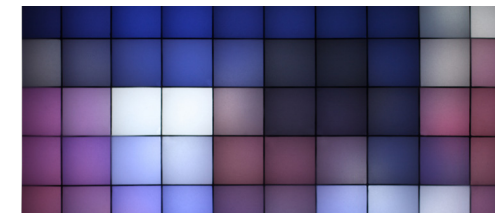
45



2019년 프랑크푸르트 모터쇼에서 첫 공개된 현대자동차의 첫 전기 전용 컨셉카로, 포니 쿠페 컨셉카를 오마주한 디자인입니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45는 지난 45년간의 현대자동차 디자인에 대한 존경을 담았습니다. 이러한 정신을 밑바탕으로 아이코닉하고 지속가능한 IONIQ만의 가치를 제시하며, 45의 디자인을 첫 전용 전기차인 IONIQ 5에 반영해 비전을 현실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The 45, a concept car of Hyundai Motor's first dedicated EV unveiled at the International Motor Show (IAA) 2019 in Frankfurt, is an homage to the Pony Coupe concept car. As its name tells it, the 45 pays respect to Hyundai's design with 45 years of history. Based on this spirit, we present the value of IONIQ which embodies its very own iconic and sustainable design, and reflect the design of 45 on IONIQ 5, the first fully electric car, to bring the vision to reality.

PRESENT - ADVANCED 2D PIXEL



Prophecy



2020년 제네바 모터쇼 공개를 위해 준비한 현대자동차의 두 번째 전기 전용 컨셉카로, 하나의 곡선으로 유려하게 이루어진 streamline처럼 가장 공기역학적인 디자인입니다. 우아한 곡선으로 드러난 매끄러운 입체감과 아름다움뿐 아니라 우리 인류가 그리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유선형의 순수한 형태로 나타냈습니다.

Prophecy, the second dedicated EV concept car of Hyundai Motor for the unveiling at the Geneva Motor Show in 2020, has the most aerodynamic design revealed by One Curve streamline. Not only does the smooth three-dimensional and beauty are revealed by the elegant curve, but it is also a pure form that signifies the hopeful future of our humanity.

FUTURE - 3D PIXEL



운영시간

10:00 ~ 20:00

(매월 첫째주 월요일, 신정 당일, 설날 및 추석 당일·익일 휴관)

가이드 투어

10:00 ~ 17:00

전문 구루(Guru)와 함께

디자인 전시를 더욱 풍부하게 관람해보세요.

진행언어: 한국어 / 영어 / 중국어

투어시간: 총 30분 (가이드 수신기 제공)

단체투어

단체 관람을 원하실 경우,

고객센터(1899-6611)로 연락주세요.

예약방법

사전예약

홈페이지: <http://motorstudio.hyundai.com/busan>

고객센터: 1899-6611

현장접수

안내데스크에서 접수하시면 됩니다.

단, 당일 사전예약이 마감되지 않은 경우에 한합니다.

Opening Hours

10:00 ~ 20:00

(Closed on the first Monday of every month, January 1st, the day of Lunar New Year and Thanksgiving plus the following day)

Guided Tours

10:00 ~ 17:00

Explore the design exhibition with Guru expert.

Available Languages: Korean / English / Chinese

Tour Time: 30 minutes(audio guide equipment provided)

Group Tours

If you wish for a group tour,

please contact Customer Service(1899-6611).

Making Reservations

Advance Tickets

Website: <http://motorstudio.hyundai.com/busan>

Customer Service: 1899-6611

Onsite Ticketing

Please inquire about ticket purchase at the information desk.

Only available if the advance tickets for the day have not sold out.